

탄소규제자유특구 기업 소통행정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소형선박 제조 현장 방문 추진상황·애로사항 청취

전북도가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기관의 목소리를 듣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12일 소형선박 제작 특구사업 현장 방문해 사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선박 실증 이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태양조선(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을 포함한 특구사업자와 탄소복합재 전문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선박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총 211억원을 투입해 탄소복합재 적용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형선박 분야는 군산지역 어선제

조업체를 중심으로 총 100억원 규모,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실증 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 점검, 개선책을 마련하고, 도·기업·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증 이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적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사업은 10톤 이하 선박 3척(9톤 낚시선, 7톤 어선, 3톤 다목적선)을 제조, 군산해상에 실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존 FRP선박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탄소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 FRP선박에 비해 선박의 선체 무게가 25% 줄어든 만큼, 35% 연비 향상과 화재 등 구조적 안전성이 증대에 상용화되면 어민의 안전과 경제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12월에는 9톤 낚시용 탄소복합재 소형선박에 대해 운항 실증을 착수하게 되며, 2022년 11월내 규정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구사업자와 전북도가 수시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친환경 선박 전환 사업 등) 참여와 지방정부 자체 지원책을 발굴 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화에 노력하게 된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참여 기업의 평생 먹거리"라며 "철저한 실증 준비로 탄소특구 모든 제품이 즉시 상용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민 소통·정책 참여 '전북 소통대로' 2주년

2년 동안 18만명 방문... 자유제안·설문·공모·이벤트 등에 3만7000여명 참여

도민과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가 13일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도민 정책소통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5월 13일 '전북 소통대로'를 개설하며, 도민과의 정책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2년간 소통대로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분야별로는 자유 제안이 740건, 도민 의견수렴 6,623건, 공모제안 1,541건이 접수되는 등 도민과의 정책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한, 총 18만여 명이 방문하며, 회원 수도 2만3,000여 명까지 늘었다.

특히,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들은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디자인' 제안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20개 지역에 교통안전 디자인인 노란색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정책으로 반영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제안은 전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소통대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 역할도 했다. 전북도 제4차 종합계획 핵심가치 설문조사를 통해 혁신, 성장, 균형 가치가 계획수립에 활용, 폭염 대책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설문조사를 통해 노후된 선종기 교체가 최우선으로 선정, 정책 수립에 반영됐다.

또한, 소통대로 소통포인트 명칭 공모 결과 '소통씨앗'이 선정되며,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어서와~전북인 인구영양 콘텐츠,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등 도정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공모 제안을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온라인 회원가입 간편화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메뉴 개선 등을 통해 누리집 접근성을 높여왔으며, 제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 답변기준을 기존 공감 50건에서 20건으로 조정했다.

또,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활동 마일리지 제도 소통씨앗의 도입과, 플랫폼 홍보와 소통대로 참여활동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을 온라인 서포터즈인 소통지기로 선발하며,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5개사 선정

전북도는 '2021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최종 5개사를 선정, 성장기업 지정서를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5개 기업은 ▲농업회사법인(주)천년누리(대표 장운영), ▲농업회사법인공사량(대표 서현정), ▲농부우리공동부영농조합법인(대표 조환승),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홍라), ▲함곡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대표 김여명)이다.

'성장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해 강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9년에 출발한 성장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2년간 총 9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2019년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020년 대비 매출액이 평균 30% 향상됐다.

2020년 참여기업은 업계 최초 벌크형 즉 제품 개발, 전북 최초 발달장애인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고가장비 공유 센터 도입 등 성과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 선도모델을 육성하고자 전년도 대비 강력한 성장 시

스템을 구축해 성장기업을 지정한다.

우선 사업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이에 사업 대상 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2년간 추가 지원받는다.

또한, 기업의 개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경영진단 컨설팅을 신규로 지원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참여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선도모델로서 모범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한국인터넷진흥원-자동차융합기술원 협약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운영 활성화·보안모델 개발·기술 분야 인적교류 등 협력키로

전북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운영 및 기술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협약식은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과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협약식을 통해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운영 활성화 및 보안모델 개발, 기술 분야 인적교류, 미래 자동차 기술 공동 연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운영 활성화 및 보안모델 개발, 기술 분야 인적교류, 미래 자동차 기술 공동 연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과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운영 및 기술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보안리빙랩에서는 모의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부품 등이 해킹 시도로부터 안전인지 시험하고,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는 실주행을 하면서 해킹 방지 기술을 시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전자제어장치,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차 핵심기기 보안 기술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전자식 제어로 통제되기 때문에,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대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

고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을 전북 군산의 자동차융합기술원 내에 개소하며, 자율주행차 보안성 시험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친환경·미래차로 변화함과 동시에 지능화·첨단화하고 있어 보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북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자동차 보안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보건복지통합경로당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가 도내 10개 시·군에 11개 대표 경로당을 '보건복지통합경로당'으로 선정해 원예치료, 퍼즐놀이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복지통합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 일차리와 돌봄 프로그램,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도 원예치료, 인지자극 책자, 퍼즐, 철교놀이 등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축산계열화사업 운영 용자금 102억원 지원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축산계열화사업 우수인센티브자금 지원사업'에 도내 5개 업체가 선정돼 운영 용자금 102억원을 지원받는다.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하는 제도다.

이번, '축산계열화사업 우수인센티브 자금 지원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화 사업을 등록한 닭·오리·염소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경영 운영 용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전국 15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0억원을 연리 0~1%로 지원하며, 올해는 전국 7개 업체가 선정됐다.

도내에는 ▲(주)사조원 24억원, ▲(주)참프레 24억원, ▲(주)하림 25억원, ▲(주)동우팜투데이 25억원, ▲(주)온누리 4억원 등 5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